



**국어사**      **개념 1 고대국어**

1) 표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함.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의 뜻 [훈(訓)]과 소리 [음(音)]를 이용하여 인명, 지명, 관명 등의 고유 명사를 표기
서기체 표기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
이두, 향찰, 구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두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어순을 조정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li> <li>•향찰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이두에 비해 우리말을 실제에 가깝게 온전히 적기 위해 고안된 방식</li> <li>•구결 :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절 아래에 토를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li> </ul>

2) 문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격 조사 : 이 [伊, 是]</li> <li>•목적격 조사 : 을 [乙]</li> <li>•보조사 : 은 [隱], 도 [置]</li> </ul>
어말 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형사형 어미 : -르 [尸], -니 [隱]</li> <li>•연결 어미 : -고 [古], -며 [旂]</li> <li>•종결 어미 : -다 [如]</li> </ul>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시- [賜]</li> <li>•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숯 - [白]</li> </ul>

3) 어휘

중세 국어에서 사라진 단어	을 [우물], 복 [아이]
중국어 차용어	분 [筆], 먹 [墨]
불교 전래	부더 [佛陀], 미륵 [彌勒]

국 어 사

개 념 2 중세국어

1) 음운

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된소리 계열의 등장</li> <li>•파찰음 ‘ㅈ, ㅊ’이 구개음이 아닌 치음으로 발음</li> <li>•‘ㅃ, ㅍ’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 존재</li> </ul>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짐.</li> <li>•7개의 단모음(ㅣ, ㅡ, ㅑ, ㅓ, ㅕ, ㅗ, ㅛ)과 다양한 이중 모음(ㅑㅣ, ㅓㅑ, ㅕㅓ, ㅗㅓ, ㅛㅓ, ㅕㅗ, ㅛㅗ 등)이 존재</li> <li>•삼중 모음(ㅑㅓㅕ, ㅓㅕㅗ, ㅕㅗㅛ)이 존재</li> </ul>

2) 표기

중성 표기	중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로 받침에도 8개의 자음이 표기됨.
이어적기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에 있는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 기퍼 (깊어), 기프니 (깊으니), 느저 (늦어), 느즈니 (늦으니), 바티라 (밭이라)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 이런전초로어린百姓이니르고져홍배이셔도
방점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방점으로 표기됨. 평성 (무점), 거성 (한 점), 상성 (두 점)이 존재함.



**국 어 사**

3) 문법

<b>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격 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체언 뒤에서 ‘이, ㅣ, Ø(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됨. ‘이’는 자음 뒤, ‘ㅣ’는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Ø’는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 뒤에서 나타남. 일반적으로 ‘가’가 쓰이지 않았음.</li> <li>☞ 말쓰미(말씀+이), 부테(부터+ㅣ), 불휘(불휘+Ø)</li> <li>•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 르’로 실현됨.</li> <li>☞ 바블(밥+을), 나톨(나+를), 픈 들 (쁜+을), 너를 (너+를), 머릴 (머리+르)</li> <li>•관형격 조사는 ‘의/의’ 계열과 ‘스’ 계열이 존재함.</li> <li>- 의/의: 평칭의 유정 명사 ☞ 사스미(사슴+의) 갖 거부빅(거북+의) 털</li> <li>- 스: 높임의 유정 명사 ☞ 부텃(부터+스) 모미 부정 명사 ☞ 나뭇(나모+스) 불휘</li> </ul>
<b>의문문 표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고/오’와 ‘-오’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li> <li>☞ 이 엇던 사름고 / 太子ㅣ 이제 어디 잇느뇨</li> <li>•의문사가 없는 관정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가/아’와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li> <li>☞ 이 쓰리 너희 좃가 / 尊者스 우희 쏘다른上座ㅣ 잇느니잇가</li> </ul>
<b>객체높임표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어미(-습- / -줍- / -습-/-)가 존재</li> <li>☞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져 흐노니(‘스승님’을 높이기 위해 모음 뒤에 ‘- 습-’을 사용함.),</li> <li>세존씨 안부 묻줄고(‘세존’을 높이기 위해 ‘ㄷ’ 받침 뒤에 ‘-줍-’을 사용함.)</li> </ul>

4) 어휘

<b>고유어와 한자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는데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가 많이 쓰임.</li> <li>☞ 피 - 산 (山), ㄹ 름- 강 (江), 슈룹 - 우산 (雨傘), 즘른 - 천 (千)</li> </ul>
<b>차용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어의 귀화</li> <li>☞ 가난 [艱難]</li> <li>•몽골어의 유입</li> <li>☞ 보라 [秋鷹] 매, 송골 [海靑] 매</li> </ul>

국 어 사

개 념 3 근대국어

1) 음운

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ㅅ’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li> <li>예) ㅅ술 &gt; ㅁ술 &gt; 마을, 어ㅅ씨 &gt; 아버지</li> <li>• ‘ㅇ’이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ㅇ’으로 변화</li> <li>예) ㅎㄴ이다 &gt; ㅎㄴ이다, 부어 &gt; 붕어</li> <li>• ‘ㅂ’계, ‘ㅃ’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li> <li>예) ㅼ &gt; ㅼ(때), ㅼ &gt; ㅼ(뜻)</li> <li>• 거센소리화와 된소리화가 나타남.</li> <li>예) ㄱ키리 &gt; ㅋ키리 (코끼리), ㅅ &gt; ㅅ(꽃)</li> <li>•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모음 ‘이’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li> <li>예) ㄴ금 &gt; 임금</li> <li>• ‘ㅈ, ㅊ’이 치음에서 구개음으로 변화됨.</li> <li>•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li> <li>예) ㅅ다 &gt; ㅅ다</li> </ul>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에는 8개의 단모음 체계 (ㅣ, ㅡ, ㅑ, ㅓ, ㅕ, ㅗ, ㅛ, ㅜ)</li> <li>• ‘·’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고, 18세기 무렵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ㅑ’로 변화</li> <li>예) ㅑ르ㅅ다 &gt; ㅑ르ㅅ다 &gt; 가르ㅅ다</li> <li>• 이중 모음이던 ‘ㅛ’와 ‘ㅜ’가 18~19세기에 단모음화</li> <li>• 입술소리 아래 쓰인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ㅓ’로 변화</li> <li>예) ㅅ &gt; ㅅ, ㅅ &gt; ㅅ, ㅅ다 &gt; ㅅ다</li> </ul>

2) 표기

종성표기	<p>종성 ‘ㄷ’과 ‘ㅅ’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ㄷ’을 ‘ㅅ’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나 받침에 7개의 자음이 표기됨.</p> <p>예) 엇고져 (엇고자), 밋어 (밋어)</p>
거듭적기	<p>중세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p> <p>예) 니를 (이어 적기), 님를 (거듭 적기), 님을 (끊어 적기)</p>



**국 어 사**

3) 문법

<b>주격조사</b>	‘가’가 등장하여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사용됨. 예) 비가 (배가)
<b>불규칙활용</b>	‘△’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서 > 지어
<b>객체높임 선어말어미</b>	‘-습- / -줍- / -습/-’이 객체 높임에 쓰이지 않게 됨.
<b>과거 시제 선어말어미</b>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 앓 - / - 었 -’이 확립됨.

4) 어휘

<b>차용어</b>	서양 문물이나 사상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관련 한자어가 들어옴. 예) 천리경 (千里鏡), 자명종 (自鳴鐘), 천주교 (天主教)
<b>어휘의 의미 변화</b>	의미가 바뀌어 현대 국어까지 유지됨. 예) 어엿브다 (가련하다 [憐] → 예쁘다 [美])

**출제 Point**





# 국어사

## Step 1

### 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적용해 본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신라의 고대 가요인 향가는 향찰이라는 특수한 차자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향찰의 표기는 복잡하지만 다른 차자 표기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때 어휘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① 명운 : ‘(밥을) 먹다’는 ‘食(먹을 식)’과 ‘多(많을 다)’를 합쳐서 ‘食多’라고 적어 보았어.
- ② 철수 : ‘(산에) 오르면’은 ‘登(오를 등)’과 ‘面(낮면)’을 합쳐서 ‘登面’이라고 적어보았어.
- ③ 진희 : ‘(집에) 가서도’는 ‘去(갈거), 立(설립), 刀(칼도)’를 합쳐서 ‘去立刀’라고 적어보았어.
- ④ 연희 : ‘(물건을) 사시고’는 ‘買(살매), 時(때시), 古(옛고)’를 합쳐서 ‘買時古’라고 적어보았어.
- ⑤ 수철 : ‘(일을) 하면은’은 ‘爲(할위), 面(낮면), 隱(숨을은)’을 합쳐서 ‘爲面隱’이라고 적어보았어.

### 2. EBSi <보기>를 참고하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 ㅣ, Ø(zero)’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 사람 + 이 → 사<sup>ㄹ</sup>미(사람이)
- 부더 + ㅣ → 부<sup>ㄷ</sup>테(부처가)
- 다리 + Ø → 다<sup>ㄹ</sup>리(다리가) / 불휘 + Ø → 불<sup>ㄹ</sup>휘(뿌리가)

15세기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ㅝ’의 7개의 단모음이 존재하였다. 현대 국어의 단모음과 비교하면 ‘ㅚ, ㅜ, ㅝ, ㅞ, ㅟ’는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었다. 15세기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는 반모음 ‘j’ 뒤에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었고, ‘ㅚ, ㅜ, ㅝ, ㅞ, ㅟ’는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뒤에 반모음 ‘j’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었다.

3. 다음 밑줄 친 ㉠~㉣의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병’은 뒤에 오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 ㉠ 뒤에 오는 모음이 ‘ㅏ’나 ‘ㅓ’ 일 때에는 반모음 ‘w’로 바뀌었지만, ㉡ ‘ㄴ’나 ‘ㄹ’이 뒤에 올 때에는 모음과 합쳐져서 ‘ㄴ, ㄹ’로 바뀌었다. 또한 ㉢ ‘ㅣ’앞에서는 주로 ‘병’이 탈락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병’은 자음 체계에서 소멸되었다.

	㉠	㉡	㉢
①	도바 > 도와	셔블 > 서울	갓가비 > 가까이
②	블바 > 밝아	더버 > 더워	갓가비 > 가까이
③	도바 > 도와	셔블 > 서울	치뵈 > 추위
④	도바 > 도와	더버 > 더워	갓가비 > 가까이
⑤	블바 > 밝아	셔블 > 서울	치뵈 > 추위



# 국어사

## Step 2 EBSi 수능특강

### 4. EBSi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국어에서는 예전에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이 어휘의 생성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늡다 (낡다)’와 ‘늣다’의 분화에는 모음 조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는 양성 모음이고, ‘ㅡ’는 음성 모음이지요. 한 단어의 모음을 모음 조화에서 대립되는 다른 모음으로 바꿈으로써 단어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쌍들이 있습니다.

- ① 마리 -머리
- ② 걷다 -곧다
- ③ 얹다 - 엷다
- ④ 늑다 -늑다
- ⑤ 푸르다 - 프르다

### 5. EBSi <보기> 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에는 양순 유성 마찰음 ‘빙[B]’이 존재했다. 그런데 ‘빙’은 15세기 후반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성 마찰음 중 가장 먼저 없어졌다. 그 변화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빙’이 놓인 환경	‘빙’의 변화 양상	예
‘빙’ 뒤에 ‘ㅅ’나 ‘ㄷ’가 오는 경우	‘빙’이 반모음 ‘w’로 바뀐다.	㉠
‘빙’ 뒤에 ‘·’나 ‘ㅡ’가 오는 경우	‘빙’이 ‘·’와 합쳐져 ‘ㄱ’로 바뀌거나, ‘ㅡ’와 합쳐져 ‘ㄷ’로 바뀐다.	㉡
‘빙’ 뒤에 파생 접미사 ‘-이’가 오는 경우	‘빙’이 탈락함.	㉢

- ① ㉠: 글밭 > 글왈
- ② ㉠: 더벅 > 더위
- ③ ㉡: 사오나툰 > 사오나온
- ④ ㉢: 치보니 > 치우니
- ⑤ ㉢: 고삐 > 고이

6. EBSi <보기> 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의 변화가 모두 나타났을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6세기에 모음 ‘·’는 2음절 이하에서 1단계 소실을 거치면서 ‘ㅡ’로 변하였다.
- 7세기에 입술소리인 ‘ㄱ, ㄴ, ㄷ’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ㅓ’로 변하였다.
- 8세기에 ‘·’는 어두 음절에서 2단계 소실을 거치면서 ‘ㅓ’로 변하였다.

- ① 버르다 > 바르다
- ② 느물 > 나물
- ③ 모르다 > 모르다
- ④ 막숨 > 마음
- ⑤ 붙여스 > 붙여우

7. EBSi <보기>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물히어든 가관(加冠)하야 비르소 례(禮)를빅호며 가(可)히 ㉡써 갓옷과 기블 니브며 대하(大夏)로 춤츠며 ㉢효도흙과 ㉣공순호물도타이 행(行)하며 너비 빅호고 ㉤가르치디 아니하며 소개 두고 내디 아니홀디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1, 선조 20년(1587)

[현대어 풀이]

스물이거든 관례를 치르고 갓을 써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가히 가죽옷과 비단을 입으며 대하(大夏)를 추고 효도함과 공손함을 도타이 행하며 널리 배우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속에 두고 내지 아니할지니라.

- ① ㉠을 통해 ㅎ 중성 체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어두에 합용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을 통해 명사형 어미 ‘-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끊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EBSi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제7장>  
 불근 새 그를 므러 寢室(침실) 이페 안즈니 聖子革命(성자혁명)에 帝祐(제우)를 뵈스 븐니 ㅅ  
 야미 가칠 므러 즘갓 가재 연즈니 聖孫將興(성손장흥)에 嘉祥(가상)이 문제시니

<제8장>  
 太子(태자)를 하늘히 곶히샤 兄(형)ㄱ ㅅ디 일어시닐 聖孫(성손)을 내시니이다  
 世子(세자)를 하늘히 곶히샤 帝命(제명)이 ㄴ리어시닐 聖子(성자)를 내시니이다  
 - 『용비어천가』 (1447)

[현대어 풀이]  
 <제7장>  
 붉은 새가 글을 물어 침실의 지계문에 앉으니, 성자가 혁명을 일으킴에 하늘이 내린 복을  
 보이니  
 뱀이 까치를 물어 나무의 가지에 얹으니, 성손이 장차 일어남에 기쁜 징조가 먼저 나타나  
 니

<제8장>  
 태자를 하늘이 가리시어 그 형의 뜻이 이루어지시매, (하늘이) 성손을 내셨습니다.  
 세자를 하늘이 가리시어 황제의 명이 내리시매, (하늘이) 성자를 내셨습니다.

	중세 국어	현대어 풀이	탐구한 내용
①	불근, 므러	붉은, 물어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②	ㅅ야미, 하늘히	뱀이, 하늘이	주격 조사는 '이'와 '히'가 사용되었다.
③	뵈스 븐니	보이니	'△', 'ㄴ', '·'와 같은 글자가 사용되었다.
④	ㅅ디	뜻이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⑤	내시니이다	내셨습니다	주체를 높이기 위해 '-시-'가 사용되었다.



**국 어 사**

10. EBSi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의 명사 중에는 뒤따르는 조사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나무’로만 나타나는 명사가 중세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합 환경에 따라 ‘나모’와 ‘남’으로 달리 나타난다.

조사 결합 환경	명사의 형태 변화	
조사 결합 없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 ‘나모’로 실현된다.	
	예: 나모 아래 안자	나무 아래 앓아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 ‘나모’로 실현된다.	
	예: 나모도 盛(성)허더니	나무도 우거지더니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 ‘남’으로 실현된다.	
	예: 불휘 기픈 남근(남+은)	뿌리 깊은 나무는

중세 국어	현대어 풀이
① <u>남기</u> (남+ 이) 높고도	나무가 높고도
② <u>나모와</u> (나모 + 와) 피콰 내콰	나무와 산과 내와
③ 문득 <u>남글</u> (남 + 을) 안고 우니	문득 나무를 안고 우니
④ <u>나모익</u> (나모 + 익) 새 님 나니이다	나무에 새잎이 난 것입니다.
⑤ <u>나모마다</u> (나모 + 마다) 곳답도다	나무마다 꽃답구나.

Step 3 연습문제

11. <보기>의 ㉠,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우리 조상들은 표의 문자인 한자가 ‘뜻’과 ‘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한자를 활용하여 고유 명사나 조사, 어미 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하고’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는 한자 ‘~爲古’ 등을 사용하였다. ‘~하’를 표현할 때 ‘爲(할 위)’를 쓴 것은 ㉠ 한자의 뜻을 활용한 것이고 ‘~고’를 표현할 때 ‘古(옛 고)’를 쓴 것은 ㉡ 한자의 음을 활용한 것이다.

- ① 지명 ‘안마을’을 표현하기 위해서 ‘內里(안 내, 마을 리)’를 활용했다면 ㉠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식물명 ‘물푸레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水靑木(물 수, 푸를 청, 나무 목)’을 활용했다면 ㉠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③ 인물명 ‘소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素那(훤 소, 어찌 나)’를 활용했다면 ㉡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④ 사물명 ‘고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高致(높을 고, 이를 치)’를 활용했다면 ㉡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⑤ 동물명 ‘거말이(거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巨末里(클 거, 끝 말, 마을 리)’를 활용했다면 ㉠, ㉡이 모두 나타난 예로 볼 수 있겠군.



**국 어 사**

12. 다음은 고유 명사 표기에 대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가설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자료</b>	<p>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b>[현대어 풀이]</b>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 『삼국사기』 권 제47</p> <p>* 참고          素 훔 소, 那 어찌 나, 金 쇠 금, 川 내 천</p>
↓	
<b>의문</b>	<p>왜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나 있는 것일까?</p>
↓	
<b>가설</b>	<p>‘素那’와 ‘金川’은 두 개의 다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p>

- ① ‘素那’, ‘金川’ 둘은 각기 다른 고유 명사에 대한 표기이다.
- ② ‘素那’, ‘金川’ 모두 한자의 뜻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 ③ ‘素那’, ‘金川’ 둘은 서로 표기는 다르지만 그것을 읽은 결과는 같았을 가능성이 있다.
- ④ ‘素那’, ‘金川’ 모두 기본적으로 뜻 부분을 읽고, 상황에 따라서 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 ⑤ ‘素那’, ‘金川’ 모두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뜻으로 읽었을 것이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사에 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서기체

표기	二	人	并	誓	記	天	前	誓
음	이	인	병	서	기	천	전	서
뜻	둘	사람	아우르다	맹세하다	기록하다	하늘	앞	맹세하다
해독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나) 구결

표기	天	地	之	間	萬	物	之	衆	厓	唯	人	伊	最	貴	爲	尼
음	천	지	지	간	만	물	지	중	애	유	인	이	최	귀	위	니
뜻	하늘	땅	~의	사이	일만	만물	~의	무리	언덕	오직	사람	저	가장	귀하다	하다	여승
해독	하늘과 땅 사이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다) 향찰

표기	夜	入	伊	遊	行	如	可
음	야	입	이	유	행	여	가
뜻	밤	들다	저	놀다	니다(가다)	다하다(같다)	옳다
해독	밤드리 노니다가 (밤 늦도록 노닐다가)						

- ① (가)는 문장을 쓸 때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이 아닌 한문 문장의 어순대로 배열하였군.
- ② (가)는 우리말 문장 전체를 온전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차자(借字)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우리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군.
- ④ (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에는 한자의 음을, 문법적 요소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와 표기했군.
- ⑤ (가)~(다) 모두 한자를 빌려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를 표기한 예에 해당하겠군.



국 어 사

14. <보기 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40 • 1

중세 국어에서 의문사가 실현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고’, ‘-뇨’, ‘-료’, ‘-오’ 등의 의문형 어미나 ‘고’, ‘오’ 등의 의문 보조사가 쓰였다. 이에 반해 의문사의 실현 없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가’, ‘-녀’, ‘-려’ 등의 의문형 어미나 ‘가’, ‘아’ 등의 의문 보조사가 쓰였다. 의문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실현되는 것인 반면, 의문 보조사는 체언 뒤에 직접 붙어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설명·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상관없이 ‘-니다’ 등이 쓰였다.

- 40 • 2
- ㉠ 이 었던 사름고 [현대어 풀이] 이 어떤 사람이냐?
  - ㉡ 이 쓰리 너희 좋가 [현대어 풀이] 이 여자가 너희의 좋아냐?
  - ㉢ 네 쓰텐 었데 너기는다 [현대어 풀이] 너의 뜻에는 어떻게 여기느냐?
  - ㉣ 었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쓰븍시니잇고 [현대어 풀이] 어떤 인연으로 여래를 낳으셨습니까?
  - ㉤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현대어 풀이] 사냥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 ① ㉠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 ② ㉡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 보조사를 사용하였다.
- ③ ㉢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 보조사를 사용하였다.
- ④ ㉣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 ⑤ ㉤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 보조사를 사용하였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1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의문문을 나타내는 형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의문사가 없는 관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나 ‘ㅑ’의 형태인 반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ㅓ’의 형태로 끝맺는다. 한편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된다.

•한글•2

ㄱ. 서경은 평안하가 묻하나 (서경은 평안하나 못하나?) (두시연해 18, 5)

ㄴ. 고원은 이제 엇더하고 (고원은 이제 어떠하나?) (두시연해 25, 24)

ㄷ. 네 엇데 안다 (너는 어찌 알았느냐?) (월인석보 23, 74)

- ① 민형 : ㄱ의 ‘묻하나’와 현대 국어 ‘못하나’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없는 경우 둘 다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같군.
- ② 채은 : ㄴ의 ‘엇더하’와 현대 국어 ‘어떠하’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있을 경우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현대 국어와 다르군.
- ③ 영문 : ㄴ의 ‘고원은’을 ‘네(네가)’로 바꾸게 되면, 의문문의 형태가 달라져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군.
- ④ 성환 : ㄷ은 주어가 ‘네’인 점으로 보아 ‘-ㄴ다’가 현대 국어와 달리 특이하게 의문문에 사용된 예이군.
- ⑤ 소영 : ㄷ의 주어를 ‘딸리(딸이)’로 바꾸면, ㄴ과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나타나겠군.



# 국 어 사

16.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를 참고했을 때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된 예로 적절한 것은?

• 41 • 1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 ‘가’가 쓰이는 반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 ‘ㅣ’, ‘∅’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조사가 쓰이는 환경 및 조사의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쓰이는 환경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이’,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 뒤	‘이’, 반모음 ‘ㅣ’의 뒤
주격 조사의 형태	이	ㅣ	∅

격 조사가 어떤 환경에서 실현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주격 조사가 실현된 형태와 관형격 조사가 실현된 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어떤 격 조사가 실현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 41 • 2

중세 국어에서 체언으로 쓰인 단어의 예를 현대어 풀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국어 단어	현대어 풀이
늡	남, 타인
십	샘, 우물
쇼	소[牛]
불휘	뿌리[根]
머리	머리, 머리털

- ① 늡 락 거스디 아니헝거든  
[현대어 풀이]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 ② 식미 기픈 므른  
[현대어 풀이] 샘이 깊은 물은
- ③ 쏘 쇠 소리 헝거든  
[현대어 풀이] 또 소의 소리 내거든
- ④ 불휘 기픈 남근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 ⑤ 龍을 지스니 머리 열히러니  
[현대어 풀이] 용을 지으니 머리가 열이러니

17.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 2>의 ㉠, ㉡에 들어갈 것을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40 • 1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애, 예, 예’ 등이 쓰였는데 앞에 오는 단어의 음운 조건에 따라 달리 쓰였다. 일반적으로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음절에 모음이 양성 모음이 나타나면 ‘애’가, 음성 모음이 나타나면 ‘예’가 쓰였다. 한편 앞에 오는 단어의 발음이 ‘이’나 반모음 ‘ㅣ’일 때에는 ‘예’가 쓰였다. 부사격 조사가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인 경우 ‘애’
  - 바랸래 (바랸 + 애) 가느니
  - [현대어 풀이] 바다에 가니
- 끝음절의 모음이 음성인 경우 ‘예’
  - 꾸메(꿈+ 예) 부텃 모물 보스븀니
  - [현대어 풀이] 꿈에 부처님의 몸을 뵈오니
- 발음이 ‘이’나 반모음 ‘ㅣ’인 경우 ‘예’
  - 저근 비예(비+ 예) 올오리라
  - [현대어 풀이] 작은 배에 오르리라

• 40 • 2

- 狄人스 서리[ ㉠ ] 가샤 [현대어 풀이] 적인(오랑캐들)의 서리(가운데)에 가시어
- 늡근 브르[ ㉡ ] 아니 뭇쨌 [현대어 풀이]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	㉡
①	애	매
②	예	매
③	애	매
④	예	매
⑤	예	매



# 국어사

1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0 • 1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이 쓰이는데, 받침 있는 체언 뒤에는 ‘을’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를’이 쓰인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두 형태와 함께 ‘을’과 ‘를’도 쓰였는데 조사 앞에 오는 모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을/를’, ‘을/를’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중세 국어 문장에서 어떠한 목적격 조사가 쓰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의 형태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아래의 중세 국어 체언 다음에는 어떤 목적격 조사가 올지 생각해 보자.

중세 국어 단어	현대어 풀이
죠희	종이
장기판	장기판
바늘	바늘
낫	낚시
므스	무엇

• 40 • 2

늘근 겨지븐 ㉠ 죠히를 그려 ㉡ 장기파늘 밍글어늘  
 저문 아드룬 ㉢바늘를 두드려 고기 낫글 ㉣낫술 링ᄃᆞᆫ다  
 한 病에 얻고져 ᄃᆞᆫ 바늘 오직 藥物이니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 므스글 求ᄃᆞᆫ리오

- 『두시언해』, 성종 12년(1481) -

[현대어 풀이]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를 낚을 낚시를 만든다.  
 많은 病(병)에 얻고자 하는 바늘 오직 藥物(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이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 ① ㉠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군.
- ② ㉡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군.
- ③ ㉢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군.
- ④ ㉣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군.
- ⑤ ㉤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군.

19.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1

훈민정음이 창제된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기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해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다음 자의 초성 자리에 내려서 쓰는 연철 표기(이어 적기)를 하였다. 이에 반해, 분철 표기(끊어 적기)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형태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적는 방식이다.

• ㉡ • 2

나라 ㉠말쓰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몫디 아니홀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 姓성이 니르고져 훈 배 이셔도 ㅁ침내 제 ㉡쁘들 시러 꺾디 문훈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爲 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字를 ㅁ꺾노니 사름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ㅁ뻔 安안키 ㅎ고져 훈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은 체언의 형태가 ‘말씀’이라면 연철 표기를 한 것이군.
- ② ㉡은 체언의 형태가 ‘쁘’이라면 분철 표기 방식으로 적을 때, ‘쁘을’처럼 적을 수 있겠군.
- ③ ㉢은 체언의 형태가 ‘놈’이라면 연철 표기를 한 것이군.
- ④ ㉣은 용언의 기본형이 ‘너지다’라면 분철 표기 방식으로 적을 때, ‘너지’처럼 적을 수 있겠군.
- ⑤ ㉤은 체언의 형태가 ‘쓰름’이라면 연철 표기를 한 것이군.



국 어 사

20.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표기 방식에 맞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철 표기란 앞 말의 받침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이어 쓰는 것으로, 그 전통은 훈민정음 창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철 표기는 16세기부터 조금씩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명사와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끊어서 표기하는 분철 표기 방식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철과 분철을 혼합해 사용하는 혼철 표기도 있었다. 혼철이란 ‘변(友)+이’를 쓸 때, 연철인 ‘버디’와 분철인 ‘변이’를 혼합하여 ‘변디’라고 표기하는 방식이다.

	표기 방식	예
①	연철	불휘 <u>기</u> 픈(깊+은) 남근 「용비어천가」
②	연철	나랏 <u>말</u> 쓰미(말씀+이) 「훈민정음」
③	분철	붉은 <u>기</u> 운이(기운+이) 「동명일기」
④	분철	<u>바르</u> 래(바를+애) 살어리랏다 「청산별곡」
⑤	분철	내 <u>넙</u> 물(넙+을) 그리스 <sup>와</sup> 「정과정」

2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1

중세 국어에서 ‘모/무’로 끝난 체언이 조사가 결합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독형일 때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면 끝모음이 떨어지고 대신 ‘ㄱ’이 덧생기는 현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체언의 형태	‘ㄱ’ 덧생김 체언의 실현 양상
단독형	‘나모’, ‘구무’와 같이 ‘-모’, ‘-무’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나모</span> 아래 안자샤 (나무 아래 앉으시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됨	‘나모’, ‘구무’와 같이 ‘-모’, ‘-무’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나모도</span> (나모+도) 짓거디며 (나무도 꺾어지며)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나뫼</span> (나모+스) 두 그테 드라 (나무의 두 끝에 달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됨	‘남, 굽’와 같이 ‘모, 무’에서 끝모음이 떨어지고 ‘ㄱ’이 덧생겨 ‘-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남기</span> (나모+이) 이시며 (나무가 있으며)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남굴</span> (나모+을) 버히니 (나무를 베니)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남기</span> (나모+의) 自然히 여르미 열며 (나무에 자연히 열매가 열며)

• ㉡.2

중세국어	현대국어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구뫼</span> (구무+스) 안홀	구멍의 안을
목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구뫼</span> (구무+이) 브어	목구멍이 부어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구뫼</span> (구무+의) 피하더니	구멍에 피하더니

- |   |    |    |    |
|---|----|----|----|
|   | ㉠  | ㉡  | ㉢  |
| ① | 구뫼 | 구뫼 | 구뫼 |
| ② | 구뫼 | 굽기 | 굽기 |
| ③ | 구뫼 | 굽기 | 구뫼 |
| ④ | 굽긔 | 굽기 | 굽긔 |
| ⑤ | 굽긔 | 구뫼 | 구뫼 |



# 국 어 사

22. <보기 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1

◦ 15세기 국어의 특징

- 현재는 쓰이지 않는 ‘빙’, ‘△’ 등의 글자가 존재하였다.
- 관형격 조사로 ‘의/의, ㅅ’ 등이 쓰였다.
- ‘-시-’ 또는 ‘-샤-’가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편이었다.

•한글•2

◦ 셔븍 기벼를 알찌 흐븍샤 나샤가샤 모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서울의 기별을 알므로 혼자서 나아가시어 모진 도적을 물리치셨습니다.

◦ 굴허에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 ㅅ 길 노편들 년기 디나리잇가  
 [현대어 풀이] 구렁에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적이 다 돌아가니, ㅅ(반) 길 높이인들 다른 사람이 지나겠습니까?  
 - 『용비어천가』, 세종 29년(1447) -

- ① ‘셔븍’과 ‘흐븍샤’에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글자가 쓰였군.
- ② ‘셔븍’에서 종성에 쓰인 ‘ㅅ’은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 ‘의’로 쓰였군.
- ③ ‘물리시니이다’에 쓰인 ‘-시-’는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였군.
- ④ ‘모딘’, ‘도즈기’, ‘디나리잇가’는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실현되었군.
- ⑤ ‘기벼를’, ‘도즈굴’, ‘므를’은 모음 조화를 지켜 표기하였군.

23.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랏:말·쓰·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스·뭇·디 아·니·홀·씨·이·런·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흫·배·이·셔·도 ㅁ·춤·내·제·쓰·들·시·러·펴·디 : ㅁ·놈·흫·노·미·하·니·라·내·이·를 爲·왕·호·야 : 어·엇·비·너·겨·새·로·스·물·여·뭇·字·종·를·밍·ᄃ·노·니 : 사·름·마·다 : 희·여 : 수·비·너·겨·날·로·뿌·메 便·便·安·한·키·호·고·져·흫·쓰·르·미·니·라  
 - 「훈민정음언해」, 세조 5년(1459년)

(나)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비교 자료			비교 결과
	중세국어 (가)	현대국어 (나)		
①	말·쓰·미, 쓰·들, 노·미	말이, 뜻을, 사람이	⇒	(가)에서는 이어 적기가, (나)에서는 끊어 적기가 나타난다.
②	펴·디	펴·지	⇒	‘ㅣ’모음 앞에 있던 ‘ㄷ’은 (가)와 달리 (나)에서 구개음인 ‘ㅈ’이 되었다.
③	쓰·들, 뿌·메, 쓰·르·미·니·라	뜻을, 쓰는 데, 따름이다	⇒	(가)와 달리 (나)에는 어두에 ‘ㅃ’, ‘ㅆ’, ‘ㅈ’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이 나란히 표기되지 않는다.
④	하·니·라	많·다	⇒	(가)에서 ‘하다’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와 ‘많다’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녔으나, (나)에서는 하나의 의미만 남았다.
⑤	배, 내	바·가, 내·가	⇒	(가)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나)에는 사용되었다.

정답 및 해설

- 1) ③ [국어의 변천] 이 문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 차자 표기의 기본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어휘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용언의 어간은 어휘 형태소이고 어미는 문법 형태소임. ‘去立刀(가서도)’에서 ‘서’는 문법 형태소인 어미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서’를 ‘호’의 뜻을 통해 표기했으므로 올바른 사례라고 할 수 없다. ㉠ ‘食多(먹다)’는 어휘 형태소 ‘먹-’을 한자의 뜻으로, 문법 형태소 ‘-다’를 한자의 음으로 표시하여 올바른 사례이다. ㉡ ‘蹙面(오르면)’은 어휘 형태소 ‘오르-’를 한자의 뜻으로, 문법 형태소 ‘-면’을 한자의 음으로 표시하여 올바른 사례이다. ㉢ ‘買時古(사시고)’는 어휘 형태소 ‘사-’를 한자의 뜻으로, 문법 형태소 부분인 ‘-시고’를 한자의 음으로 표시하여 올바른 사례이다. ㉣ ‘爲面隱(하면은)’은 어휘 형태소 ‘하-’를 한자의 뜻으로, 문법 형태소 부분인 ‘-면은’을 한자의 음으로 표시하여 올바른 사례이다.
- 2) ㉡ ‘이’는 자음 뒤, ‘ㅣ’는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끝나는 이종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ㅇ’은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끝나는 이종 모음 뒤에서 실현되었다.
- 3) ①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빙’은 뒤에 결합하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다름. ‘도박>도와’는 ‘빙’이 ‘ㅌ’앞에서 ‘w’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서불>서울’은 ‘빙’과 ‘-’가 결합하여 ‘ㅌ’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갓가비>가까이’는 ‘빙’이 ‘ㅣ’ 앞에서 탈락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불바>뵤아’는 ‘빙’이 ‘ㅌ’으로 남아 있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더벅>더워’는 ‘빙’이 ‘ㅌ’ 앞에서 ‘w’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갓가비>가까이’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도박>도와’와 ‘서불>서울’은 ㉠, ㉡의 예로 적절하다. ‘치훅>추위’는 ‘빙’과 ‘-’가 ‘ㅌ’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④ ‘도박>도와’와 ‘갓가비>가까이’는 각각 ㉠, ㉡의 예로 적절하지만 ‘더벅>더워’는 ㉢의 예가 될 수 없다. ⑤ ‘서불>서울’은 ㉡의 예로 적절하지만, ‘불바>뵤아’와 ‘치훅>추위’는 ㉠, ㉡의 예가 될 수 없다.
- 4) ㉡ ② [국어의 변천] ‘걷다’와 ‘곧다’의 ‘ㅌ’는 음성 모음이고 ‘ㅌ’는 양성 모음이지만 서로 대립하는 모음이 아니다. ‘ㅌ’는 ‘ㅌ’와, ‘ㅌ’는 ‘ㅌ’와 대립한다. 따라서 모음 대립을 통해 어휘가 분화된 예로 보기 어렵다. ㉠ ‘마리’와 ‘머리’의 ‘ㅌ’와 ‘ㅌ’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③ ‘얇다’와 ‘엷다’의 ‘ㅌ’와 ‘ㅌ’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④ ‘눅다’와 ‘눅다’의 ‘ㅌ’와 ‘ㅌ’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⑤ ‘프르다’와 ‘프르다’의 ‘ㅌ’와 ‘ㅌ’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 5) ㉡ ④ [국어의 변천] ‘치보니’의 ‘빙’은 ‘-’와 합쳐져 ‘ㅌ’로 바뀌어 ‘치우니’가 되므로, 이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글밭’의 ‘빙’은 ‘ㅌ’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뀌어 ‘글왓’이 되는데, 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더워’의 ‘빙’은 ‘ㅌ’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뀌어 ‘더워’가 되는데, 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사오나훅’의 ‘빙’은 ‘ㅌ’와 합쳐져 ‘ㅌ’로 바뀌어 ‘사오나온’이 되는데, 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고삐’는 ‘빙’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 탈락하여 ‘고이’가 되는데, 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 6) ㉡ ② [국어의 변천] ‘눅물’은 ‘눅물>눅물>눅물>나물’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부르다’가 ‘바르다’로 변한 것에서는 ‘-’가 ‘ㅌ’로 변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모르다’가 ‘모르다’로 변한 것에서는 ‘-’가 ‘ㅌ’로 변한 현상과 ‘ㅌ’가 ‘ㅌ’로 변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④ ‘밋숨’이 ‘마음’으로 변한 것에서는 ‘-’가 ‘ㅌ’로 변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불여승’이 ‘불여우’로 변한 것에서는 ‘ㅌ’가 ‘ㅌ’와 ‘ㅌ’로 변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 7) ㉡ ④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의 ‘공순호물’은 ‘공순흙+물’을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을 통해 끊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의 ‘스물이어든’은 ‘스물+이어든’을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스물’을 통해 ≡ 종성 체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어두에는 ‘ㅌ’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어두에 합용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효도ㅎ-+-음’의 구성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ㄱ르치디’의 ‘-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8) ㉡ ②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 ㉡ ‘쁘들’과 ‘뿌메’의 ‘ㅌ’과 ‘ㅌ’은 모두 어두에서 발음되는 어두 자음군이면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적은 합용 병서에 해당한다. ㉢ ‘뽕’과 ‘뽕’을 이어 적기를 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뽕’에는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지만, ‘뽕’에는 명사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쁘들’과 ‘뿌메’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9) ㉡ ②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하늘히’는 ‘하늘’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한 것을 이어 적기한 형태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잘못이다. ㉠ ‘블근’과 ‘프러’는 ‘블은’과 ‘플어’를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③ ‘뽕스훅니’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ㅌ, ㅌ, ㅌ’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였다. ④ ‘쁘디’의 ‘ㅌ’는 어두에서 모두 발음되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⑤ ‘내시니이다’의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10) ㉠ ④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익’은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냘’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나모 +익’은 ‘남기(냘+익)’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① ‘이’는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냘’으로 실현된다. ㉢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로 실현되기 때문에 ‘나모와’의 형태로 실현된다. ㉣ ‘을’은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냘’으로 실현된다. ㉤ ‘마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나모’로 실현된다.
- 11) ㉠ ⑥ [국어의 변천] ‘거말이(거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巨末里(클 거, 끝 말,마을 리)’를 활용했다면 한자의 음을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 ① ‘안마을’을 표현하기 위해서 ‘內里(안 내, 마을 리)’를 활용했다면 한자의 뜻을 활용한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물푸레나무’를 표현하기 위해 ‘水靑木(물 수, 푸를 청, 나무 목)’을 활용했다면 한자의 뜻을 활용한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소나’를 표현하기 위해 ‘素那(힐 소, 어찌 나)’를 활용했다면 한자의 음을 활용한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고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高致(높을 고, 이를 치)’를 활용했다면 한자의 음을 활용한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12) ㉠ ③ [문자 생활사 파악] ‘素那’와 ‘金川’이 하나의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素那’와 ‘金川’을 읽은 결과가 같았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자의 뜻과 음을 정리한 표를 보면, ‘素那’를 음독하여 [소나]와 유사한 발음으로, ‘金川’을 훈독하여 [쇠내]와 유사한 발음으로 읽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素那’와 ‘金川’이 각각 다른 고유 명사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라는 설명은 가설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④, ⑤ ‘자료’의 ‘참고’에 제시된 한자의 뜻과 음을 고려할 때, ‘素那’, ‘金川’가 유사한 발음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素那’는 음 부분을 읽고 ‘金川’은 뜻 부분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 ②, ④, ⑤ 모두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 13) ㉠ ③ [차자 표기의 원리와 방법 이해] (나)는 ‘天地之間萬物之衆唯人最貴’라는 한문 문장에 우리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첨가한 것이다. 厓(애(에)), 伊(이)는 원문 문장을 우리말로 읽을 때 필요한 조사이며, 爲尼(-하니)는 과생 접미사와 연결 어미의 결합으로서, ‘貴(귀하다)’를 ‘귀하니’라는 연결형으로 읽도록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 ① (가)는 조사나 어미 등에 해당하는 차자 표기는 없지만, ‘天前誓(하늘 앞에 맹세한다.)’에서 알 수 있듯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배열한 문장이다. ㉢ ② (가)의 표기에는 우리말 문장의 조사나 어미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적을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차자 표기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다) 중 가장 종합적인 차자 표기 방식은 향찰인 (다)이다. ㉣ ④ (다)에서 ‘夜, 入, 遊’처럼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에는 한자의 뜻이 활용되었고, ‘伊, 可’같은 문법적 요소에는 한자의 음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④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行’의 의미인 ‘나다’는 오늘날의 ‘가다, 다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옛말이고, ‘如’의 의미인 ‘다하다’는 오늘날의 ‘같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옛말인데, 여기서는 의미와 무관하게 ‘다하다’의 소리 중 일부인 ‘다’를 빌려 온 것이다. ㉤ ⑤ (가)~(다)에서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 명사를 표기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14) ㉠ ④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은 의문사 ‘엇던’이 실현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의문형 어미 ‘-고’가 사용된 문장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① ㉢은 의문사 ‘엇던’이 실현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체언 ‘사름’에 의문 보조사 ‘고’가 쓰인 문장이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은 의문사의 실현 없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체언 ‘중’에 의문 보조사 ‘가’가 쓰인 문장이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은 주어가 2인칭이면서 의문사 ‘엇테’가 실현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의문형 어미 ‘-나다’가 쓰인 문장이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은 의문사의 실현 없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의문형 어미 ‘-가’가 쓰인 문장이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15) ㉠ ③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의 주어 ‘고원온’을 ‘네(네가)’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이 되므로, 올바른 의문문의 형태는 ‘-나다’를 사용한 ‘네 이제 엇더히다’가 된다. ㉡ ① ㉢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ㅜ’의 형태로 끝난다. ㉣ ㉣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ㅜ’의 형태로 끝나는 반면 현대 국어는 ‘ㅜ’의 형태로 끝난다. ㉤ ㉣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특이하게 ‘-나다’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 ㉣의 주어 ‘네’를 ‘뜨리(딸이)’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가 3인칭일 경우 ‘-나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엇테’를 고려하여 의문문의 마지막 모음이 ‘ㅜ’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 16) ㉠ ②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십+ 이’로 분석되며 ‘셈이’로 해석되므로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된 예이다. ㉡ ① ‘늑+익’로 분석되며 ‘남의’로 해석되므로 관형격 조사가 ‘익’로 실현된 예이다. ㉢ ③ ‘쇼 + ㅣ’로 분석되며 ‘소의’로 해석되므로 관형격 조사가 ‘ㅣ’로 실현된 예이다. ㉣ ④ ‘불휘 + ㅍ’로 분석되며 ‘뿌리가’로 해석되므로 주격 조사가 ‘ㅍ’로 실현된 예이다. ㉤ ⑤ ‘머리 + ㅍ’로 분석되며 ‘머리가’로 해석되므로 주격 조사가 ‘ㅍ’로 실현된 예이다.
- 17) ㉠ ⑤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서리’는 말음이 ‘ㅣ’로 끝났으므로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이고, ‘브름’은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애’가 쓰이는데 연철 표기가 되어 ‘브르매’라고 써야 맞다. ㉡ ① ㉢



# 국 어 사

에 들어갈 것으로 '애'는 적절하지 않고 ㉠에 들어갈 것으로 '매'도 적절하지 않다. ② ㉠에 들어갈 것으로 '애'는 적절하지 않고 ㉡에 들어갈 것으로 '매'는 적절하다. ③ ㉠에 들어갈 것으로 '애'는 적절하지 않고 ㉡에 들어갈 것으로 '매'는 적절하다. ④ ㉠에 들어갈 것으로 '애'는 적절하고 ㉡에 들어갈 것으로 '매'는 적절하지 않다.

18) ㉠ ③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바느룰'은 '바늘(바늘) + 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목적격 조사는 '룰'이 아니라 '올'이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① '조히룰'은 '조히(종이) + 룰+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목적격 조사는 '룰'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장기과늘'은 '장기판(장기판) + 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목적격 조사는 '올'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낙술'은 '낙 + 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목적격 조사는 '올'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므스글'은 '므스(무엇) + 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목적격 조사는 '올'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19) ㉠ ④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 '너겨'는 현대어 풀이로 미루어 볼 때 '너기다'가 기본형에 해당하므로 '녁여'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너기-'가 어간이어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온 경우가 아니므로 연철 표기나 분철 표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① ㉠ '말썽미'는 '말썽'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연철 표기를 한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 '쁘들'은 '쁘'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형태로, 형태를 밝혀 적는다면 '쁘을'처럼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 '노미'는 '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연철 표기를 한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 '썩락미니라'는 의존명사 '썩름' 뒤에 '이니라'가 결합된 형태로, 연철 표기를 한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20) ㉠ ④ [표기 방식에 대한 이해] '바라래'는 명사(바랄)와 조사(애)를 구분하지 않고 받침을 조사에 연달아 이어 쓴 연철 표기 방식이다. ㉡ ① 받침을 어미에 연달아 이어 쓰고 있다. ② 받침을 조사에 연달아 이어 쓰고 있다. ③ 명사와 조사를 분리하여 끊어서 표기하고 있다. ⑤ 연철과 분철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21) ㉠ ② [중세 국어의 이해] ㉠ '나모'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관형격 조사 '시' 결합하면 단독형에 그대로 조사가 결합되어 '나뭇'이 된 것과 같이, '구무'에 '시' 결합하면 역시 '구뭇'이 된다. ㉡ '나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단독형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떨어지고 '기' 덧생긴 '납'에 '이'가 결합된 형태 '납기'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구무'에 '이'가 결합하면 역시 '굽'에 '이'가 결합된 형태 '굽기'로 실현된다. ㉢ '나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 단독형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떨어지고 '기' 덧생긴 '납'에 '의'가 결합된 형태 '납기'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구무'에 '의'가 결합하면 역시 '굽'에 '의'가 결합된 형태 '굽기'로 실현된다.

22) ㉠ ④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모진', '디나리잇가'는 현대 국어의 '모진', '지나겠습니까'로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이지만 '도즈기'는 구개음화 실현과는 관련이 없는 예이다. ㉡ ① '셔븍'과 '헝벗사'에는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글자인 '븍', 'ㅅ' 등이 쓰였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셔븍'에서 종성에 쓰인 'ㅅ'은 관형격 조사로 쓰여서 '셔븍'은 '서울의'로 해석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틀리시니이다'에 쓰인 '-시-'는 주체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괴벼를'은 음성 모음끼리, '도즈굴', '르물'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서 모음 조화를 잘 지켰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23) ㉠ ④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중세 국어의 '하다'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와 '많다'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의 '헝고져'가 '하고자'로 풀이된 것을 고려하면, 중세 국어에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를 나타낸 것은 '하다'가 아니라 '헝다'임을 알 수 있다. ㉡ ① (가)에서 '말썽미', '쁘을', '놈'으로 표기하지 않고 '말썽미', '쁘들', '노미'로 표기한 데에서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를 서로 비교해 보면 '피디'의 '-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지'로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쁘들', '뿌메', '썩락미니라'의 '쁘', '뿌', '썩'는 현대 국어에서 모두 'ㅌ' 또는 'ㅍ'으로 표기되었다. 즉 (가)와 달리 (나)에는 어두에 '쁘', '뿌', '썩'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이 나란히 표기되지 않았다. ⑤ '배', '내'와 달리, 현대어 풀이에 제시된 '바가', '내가'에는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